

전일동향

전일대비 4.40원 상승한 1,320.10원에 마감

10일 환율은 전일대비 4.40원 상승한 1,320.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00원 상승한 1,319.70원에 개장했다. 상승 출발한 환율은 1,321원 부근까지 상승했으나 수출업체 네고 유입에 추가 상승은 제한됐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1,320원을 중심으로 등락했고, 장 후반 장중 고점 1,321.8원을 경신한 뒤 1,320.1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4.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0.7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19.70	1321.80	1317.60	1320.10	1320.10
	엔화	910.37	914.62	905.04	905.37	-
	유로화	1437.78	1448.54	1437.37	1447.5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4	-6.43	-13.18	-26.01
	결제환율(수입)	-1.32	-5.42	-11.52	-22.4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 회복 등에...1,31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20.10) 대비 1.00원 하락한 1,316.7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회복 등에 제한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간밤 뉴욕장 마감 무렵 달러인덱스는 102.41pt로 전장대비 0.31% 하락했다. 12월 유로존 물가상승으로 ECB의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인식이 확대되며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물가안정을 위한 높은 수준의 금리 유지 필요 발언과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 하락은 제한됐다. 뉴욕 주요 증시는 기업실적 개선과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상승 마감하며 위험선호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금일 환율은 달러인덱스 하락과 뉴욕증시 상승 등 위험선호심리 회복으로 환율 하락 압력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나 12월 미 CPI를 대기하며 금통위 결과 및 실수급에 따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14.25 ~ 1323.2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9.0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0원 ↓
	■ 美 다우지수 : 37695.73, +170.57p(+0.4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2.7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31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